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0. 첫째 나팔

2013. 10. 0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에 대하여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4~7]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주었고, 기도는 그 공식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7나팔을 불기 전에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성소봉사와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답: 지난 시간에 잠깐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적 시간에도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의 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지요. 아직도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하시는 성소봉사에 의하여 유지되고 진행되고 마침내 역사적 종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보여주셨는데, 금 촛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이지요. 1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다 성소봉사와 관련되어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소 기구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촛대도 그렇고, 보좌 앞 금단, 향로, 성전, 이런 표현들이 다 성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것이 성소에서 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알만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성소적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2. 목사님이 성소봉사라고 하지 않고 성소적 봉사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예, 저는 의미를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소 문제는 우리교회가 아주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소 문제를 공부할 때에 지상에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한 그 성소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지요.(히8:5) 그래서 하늘 성소를 지상에 짓게 한 성소구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구조보다 우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출25:8에 잘 가르쳐주셨지요.

[출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 상태로는 죄인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없지요. 사람들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에 있고 산 자들만이 산 자의 땅에서 산 자들과 함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 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목적은 죽은 자들을 산 자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시킨 것입니다. 그 핵심이 봉사에 있습니다. 봉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즉 항상 하는 봉사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제사봉사, 떡 상 봉사, 촛대 봉사, 분향단 봉사입니다. 이 봉사를 통하여 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희생이 되신다는 조건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구약성소봉사의 속죄 희생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10:4~7]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이 되심으로 속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소에서 속죄 봉사하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속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봉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적 봉사는 속죄봉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적 봉사는 심판봉사가 중심이 되지요.

3. 목사님의 그 말씀은 예수께서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적 봉사, 곧 속죄 봉사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답: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성소는 구조와 위치에 대한 것보다 봉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 봉사를 표상하는 역할과 기능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소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소이시고, 속죄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성소봉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 안에든지 성소 안

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속죄 봉사가 필요할 때 속죄 봉사를 하시고 심판 봉사가 필요할 때 심판 봉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이든지 그 위치와 장소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성소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예수께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즉 분향단의 향을 올리시며 받으시는 사실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시대 내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때실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일곱 나팔도 아직은 예수께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는 동안 진행될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4. 예, 이제 성소적 봉사라고 말씀한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면서 중보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신 장면이군요.(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확인하게 하신 후에 세상에 진행될 사건을 계시하시는 사랑을 알겠습니다.(참, 감사하지요.) 이제 나팔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하지요. 8:2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고, 3,4절에 기도와 향연에 대하여 보여주신 다음에 5절에 향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심판하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일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있을 일이라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도들을 핍박으로 몰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마침내 임할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위엄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향로에 향단의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는 것은 속죄일 행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속죄일 행사와 관계가 있단지요?) 예, 성경에는 명백한 기록이 없는데요, 유대인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봉사를 할 때에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나온 향연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연으로 자욱하게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성소의 세키나가 향연으로 가리게 되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면 성소 밖에 나와서 향로의 재를 쏟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천사가 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 장면이 이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으로 성소 봉사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판이 집행될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겠지요. 아마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상징으로 심판 집행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면서 심판이 집행될 때 광경까지 가르쳐주신 것이군요.(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그렇지요.) 이제 첫째 나팔을 부는 내용부터 말씀을 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6절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 위하여 준비하더라고 했네요.

답: 그렇지요. 그리고 7절에 첫째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전봉사할 때에 매일 성소봉사가 끝이 나면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아직도 성소봉사 시대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향로의 불을 땅에 쏟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민10:1~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3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5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6 제 이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레니라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10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진이 출발하는 신호가 되고, 전쟁하러 나가는 신호도 됩니다. 바울도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고 했습니다.(고전14:8) 그런데 존 폴린 박사는 구약에 나팔을 부는 것을 자세히 살핀 것 같습니다. 그가 살핀 대로는 구약성경에 134번 나팔이 울렸는데, 나팔을 부는 기본 용도는 예배와 기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향연과 나팔은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기도는 어두움의 세력과 대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전쟁의 승리의 무기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기억하시는 것이 확실하지요.

6.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확인하신다는 뜻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상징성이 있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예비하라는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요? 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상징했을까요?

답: 글썽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팔 기별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확실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구요, 다음은 이 세상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목적이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라는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사58:1]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날려서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지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전15:51,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전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이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나팔로 상징된 사건들이 여섯째 나팔까지는 하나님 앞 금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9:13,14]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가 금 향단이 있는 성소에서 보내는 소리이고, 일곱째 나팔, 곧 향로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은 봉사가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니까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소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기간이 성소봉사 기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장면은 16장에 나타난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팔로 표상된 사건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교회에 가하는 공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그렇군요. 아무튼 계시록은 상징적 표현이 심오해서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된 사건을 역사주의적으로 이해할 때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구조가 같은 역사적 기간에 진행되는 사건을 4각 기둥의 각 면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이해가 한층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도 일곱 인이나 일곱 교회처럼 시작하는 시기는 같은데 진행되는 사건들은 반드시 연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임에는 틀림없지요.

8.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이야기해 주시지요.

답: 읽은 말씀이지만 7절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계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인이나, 교회와 같은 출발선에서 생각하면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역사적 기간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초대교회를 극도로 핍박한 유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른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일곱 개의 상징적인 단어들(피, 우박, 불, 땅, 수목, 삼

분의 일, 각종 푸른 풀입니다. 피는 유혈 사건을 상징하고, 우박은 폭력을 표상하고, 불은 방화, 땅은 국토, 수목은 백성, 푸른 풀은 동물들에 대한 표상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푸른 풀은 동물들의 먹이로 주셨거든요.(창1:30)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제한된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7~12절까지 삼분의 일이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인에서는 사분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그때는 지구 전체가 아니고 땅을 사방으로 표현한 방법에서 땅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일입니다. 지역이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이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공격한 세력에게 내리는 심판의 광경이라고 생각할 때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이 세력을 조종하는 사단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사단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표상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의 이런 이해에 동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사건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말씀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9. 들어보니 그 이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장면은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표상적으로 예언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고 그들이 권고하는 때를 몰랐다고 탄식한 것과 대조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눅19:41~44]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고 하셨지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것을 기록한 곳이 세 곳입니다. 세 번만 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 무덤에서,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히5:7) 예루살렘과 그 곳에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멸망이 예수님 눈에 밝히 보이는데, 그들은 권고받는 날을 모르고 있으니깐요. 우리도 권고받는 날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극적 최후를 면하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0. 목사님 시간이 되었군요. 권고받는 날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권고받은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편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